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근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답

책 중의 책 「성서」

책의 아름다움은 지식을 전달할 뿐더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내가 읽은 수많은 책 중에서 위에 적은 말에 가장 적절한 책은 「성서」였다. 다른 책들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삶의 경험을 담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생명을 가진 책은 없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왜 도서관에 있는 그 수많은 책 중에서 유독 성서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근원을 담고 있는가?

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책의 해답을 담고 있는 것일까? 왜 성서만이 전세계의 언어를 익힌 것일까? 그리고 성서를 기록한 필자들은 전문적인 저술가가 아니라 목자, 어부, 세 금 징수원, 의사, 천막 만드는 사람, 제사장, 예언자, 왕들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것일까? 왜 다니엘 12:8-10에서 지적하듯이 성서 필자들 자신도 기록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을까? 마지막으로 聖書는 인류에게 무엇을 주고자 기록된 것일까?

위에 제시된 해답을 풀고자 지금까지 수많은 주해서와 보조서들이 나왔다. 기독교 서점에 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서적이 서가에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서적을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할까? 여러가지 방법이 나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성서의 주제를 이해하고 읽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성서의 주제는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인간에게 주재파악을 하여 회개하고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드릴 것을 이해시키고자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직접 성서를 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읽는다면 새로운 이해를 하는 즐거움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 한 방법은 성서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나 의문점들을 기록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물어보는 것이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질문한다면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서를 가지고 있으나 자기 것으로 소유한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저술가 헨리 밴 다이크는 성서에 관해 이렇게 기술하였다. “동방에서 태어나 동양적인 형식과 상상으로 옷입은 성서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들어가는 나라마다 자기 고장으로 만든다. 성서는 수백 개의 언어를 익혀 사람의 마음에

호소해 왔다. 아이들은 경탄과 기쁨으로 그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현인들은 그 이야기들을 삶의 비유로서 숙고한다. 악한자와 교만한 자는 그 경고에 몸을 떨지만 상처입고 참회한 사람에게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와도 같다. 이 보물을 자기 소유로 한 그 누구도 가난하거나 외롭지 않다.”

봄처럼 소생하는 생명을 가진 성서를 올 책의 해에는 절친한 친구로서 사귀어보기를 권한다. 다시 말하지만 성서는 모든 책을 수용할 단 하나의 책이다.

이호문

서울 동작구 사당5동 190-192호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평소에 여성학에 관심을 가져왔던 나는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 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자는 왜?」 등 여성학 분야의 책을 내던 사람이 번역한 책이어서 역사에 대한 친밀함으로 읽게 되었다. 또한 저자인 마빈 헤리스는 그리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이 책은 우리 일상의 많은 신비를 벗겨준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밥에 얽힌 인류의 이야기는 참으로 복잡다난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일정한 부분은 법칙이 아니라 신비로 남겨져 있었다. 밥과 인간의 지고한 투쟁의 역사는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인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되어, 사실 그것이 밥을 둘러싼 인간과 인간의 투쟁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은 망각되어 왔다.

이 책에서 왜 힌두교인들은 소를 신성시 하는가, 미국인들이 말고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서에서 금지되어 왔던 육식 종류에 대한 신화, 우유는 과연 건강식품인가 등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논하는 데도 이야기들이 흥미 있고 풍부한 상식으로 머물지 않는 것은 저자 또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

일례로, 척박한 땅에서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힌두권의 하층 민중들이 소를 신성시해온 것은 브라만 계급이 설교한 종교의 금기가 효과적으로 먹혀들어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업을 보존하고 나름대로의 지배층에 대한 미약한 저항을 지속하려는 그들의 항거수단이었고 저자는 주장한다. 또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가려놓은 것들도 그들의 교통 수단이나 생계, 위생에 필수적인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보다 우리와 가까운 일로서는 ‘완전식품 우유’에 대한 믿음도 오히려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이 라기보다는 북아메리카 문화의 확장이 식민지에 침투하고 강요한 당시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환경에 대한 생존으로서의 대응과, 그 사회가 지배하고 강요하는 것에 대한 대응과 저항으로서 음식문화가 발달해 왔다는 입장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꽤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역자에 따르면 오히려 음식문화의 현발달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시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은 우리가 꺼려왔던 것 신성시해왔던 것들에 대한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읽는 사람은 ‘인류’의 보편적이고 축적된 문화에 대해서도 보다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신인옥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사람아 아, 사람아!」

“저는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작가 다이호우잉(戴厚英)이 대학 시절 어떤 선생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다이호우잉의 작품을 처음 대하게 되었을 때, 루쉰의 ‘아Q정전’ 밖에는 알지 못했던 편협한 중국 현대문학의 이해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이호우잉은 현대 중국 휴머니즘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알려지고 있다. 다이호우잉은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혁명대열에 작가로 참여했다가 수정주의 작가로 비판받던 시인 웨제와의 사랑과 그 결혼의 실패로 반혁명분자로 몰려 고난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애정을 묘사한 작품이 「시인의 죽음」이라고 한다. 「사람아 아, 사람아!」는 「시인의 죽음」 「허공의 발자국소리」와 아울러 다이호우잉의 대표작이며 중국 지식인 문학의 3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품 속에서는 중국의 문혁이 사건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지식인들의 고난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사람아 아, 사람아!」는 10명의 주요 인물이 각기 새로운 장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개별적인 사건과 공통된 상황들에 대해 여러 가지 시점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 후기에서 밝힌 바대로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으로 인간 군상에 대한 참된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는 것과 아울러 개개인의 심리묘사와 상황정세에 대해 10명 나름대로의 가치체계와 판단이 심도있게 표현하기에 적절한 기법으로 보인다.

작품을 이끄는 주요 인물인 손유에는 작가 자신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호우잉이 남편과 이혼한 후에 겪게 된 고통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으며 작품 안에서 손유와 호젠후의 두 사람의 의지로 마지막에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은 아마도 작가의 자신에 대한 바람이었을 것이다.

또, 호젠후의 ‘마르크스주의의 휴머니즘’이란 논제는 문혁을 거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중국지식인들의 일면과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시류), 이에 동조하는 젊은 세대(시왕), 그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무리(요류시)에 대해 등장인물 자신의 관점에서 심리묘사를 시도함으로써 현대 중국의 문제점과 모순을 보다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쨌든 다이호우잉은 이 작품 속에서 작가 특유의 감수성과 깊은 문예이론의 이해와 적용으로 현대 중국지식인들에 대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린 중국사회의 모순을 마르크스적인 휴머니즘으로 타개해 보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황준택

서울 구로구 고척1동 98-96호

「화척」

작가 김주영, 그는 작가적 역량을 고민하다가 절필을 선언함으로써 우리에게 더욱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장편 대하소설 「객주」 「활빈도」 「천둥소리」 등도 낯설지 않은 그의 소설이다. 이러한 대작을 남길 수 있는 그가 절필을 선언해야 할 정도로 고민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김주영의 문학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화척」은 고려시대 무인정권을 배경으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야망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고려시대 천민의 생활상을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역사적으로 재해석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는 경제사의 개념상 봉건시대에 속한다. 이 시대에 관한 역사학적 연구로는 변태섭의 「만적란 발생의 사회적 소지-무신란 후의 신분구성 변질을 기반으로」(「사학연구 4」 1959)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문반과 무반」(「사학연구 11」 1961), 「고려무반연구」(「아세아연구 17」 1965), 김당택의 「이의민 정권의 성격」(「역사학보 83」 1979), 박윤경의 「최충헌 정권의 성립과 그 성격」(「이대사원 20」 1983) 등 비교적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밖에도 무인정권의 연구는 사회, 신분, 경제, 문무반, 노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소설 「화적」은 이러한 시대사적 배경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 형상화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했다. 대부분의 역사소설이 그러하듯이 이 소설도 작품으로 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역사적 고증, 개연성 확보, 미적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항상 부딪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고려시대를 평민사의 입장에서 거슬러 올라가 스토리를 이루어내야 하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작가가 이 작품을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절필해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 작품은 제1부 유혈(流血) 3권만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후속 작품이 미처 형상화되기도 전에 작가가 지쳐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다시 읽게 되는 까닭은 미완성이지만 철저한 역사적식을 바탕으로 형상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고려 중기 정중부의 난을 배경으로 수자리 출신의 노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압록강 근처의 월경지 마을에서 개경으로 방랑의 길을 찾아 나선 거칠, 결보 일행과 그의 조카 만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천민들의 삶, 무인 쿠데타, 정중부와 이의방, 이의민 정권의 탄생과 변천 등이 제1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작가의 고려시대 무인정권에 대한 해석 태도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역사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방 수하에서 오로지 천민의 탈을 벗으려는 욕망으로 몸부림치는 거칠을 통해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사노비의

신분으로 벽란도를 무대로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결보, 한 인간으로서 만적의 성장 따위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끝맺음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학적 인간으로서 소설적 자아의 모습은 형상화된 결론을 얻어낼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작품 속에 흐르고 있는 역사해석의 태도는 무인정권이 분명 역사상의 분기점으로 신분 변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 특히 나말여초의 호족 출신과는 달리 양천 구분없이 실력에 의한 중앙 진출이 가능했다는 점, 그러한 가운데 경제사적으로 노비해방 운동이라 할 수 있는 만적의 난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 등을 놓치지 않고 그려낸다.

제1부의 끝맺음은 끈질긴 민초들의 생명력이 제2부에서 어떻게 재생될 것인가라는 호기심을 남기기에 충분한 모티브를 갖고 있다. 추노(追奴)의 길을 벗어나 방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위충의 난에 가담했다가 다시 현실을 깨닫고 새로운 힘을 비축해야 하는 천민들의 삶을 통해 끈질긴 민초(民草)들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이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남는 아쉬움은 더욱 크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문학 예술적인 면에서 형상화 가능성과 카타르시스라는 입장에서 나타난다. 작가가 갖고 있었던 관심사가운데 하나가 당시 신분질서상의 무인세력과 천민간의 고뇌, 혼인제도, 노비의 난 등에 있었다면 이에 대한 그의 해석은 어떤 역사학의 논문보다도 현실적이고 가치있는 해석이 기대된다. 다만 작가 자신도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방대한 주제에 대해 한꺼번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역량부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절필을 선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화적」을 통해 나타난 역새풍과 같은 민초의 생명력을 다시 확인하며, 그의 문학적 역량 속에서 다시 형상화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

허재영

경기도 미금시 도농동 106번지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황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터링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교열·교정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영문 전용출력기 1대
- 영문 전용출력기 1대
- 영문 전용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